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이재영(환경교육정보센터)·김인호(신구전문대학)·이선경(신관중학교)

I. 서론

현재의 학교 환경교육의 제한점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는 학교급 별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가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중매체는 단순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수준에서부터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이미 사회 환경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부족하기 쉬운 현장성과 최신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교재로 혹은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용 시청각 매체와는 달리 대중매체는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학교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 목적, 활용 여건, 통제 가능성 등에 따라 선택과 변형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나 전략에 관한 연구에 앞서 이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의 활용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는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크게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사는 1994년 겨울(1차)과 1995년 여름(2차)에 실시된 「환경」과 부전공 자격연수에 참여한 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실한 5매를 제외한 179매를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조사 대상을 「환경」과 부전공 자격 연수에 참여한 교사로 제한한 이유는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조사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씩 총 6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지 중 응답이 불충실한 50매를 제외한 635매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초등학생은 5학년,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생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교사용 설문지에는 주로 대중매체의 영향, 필요성, 활용 가능성, 선결 과제 등 총 10문항이 포함되었으며, 학생용 설문에는 매체에 대한 친숙도, 정보출처, 신뢰도, 선호도, 선호 이유 등 총 5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중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와 그 이유에 대한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문 결과는 SPSS/PC+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은 교사용과 학생용에 모두 적용하였으며, 교차분석은 성별, 학급별, 주거유형별로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교사 설문 분석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환경교육에 미치는 대중매체와 학교교육의 영향 비교,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그 이유,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 대중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해결 과제 등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와 학교교육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179명의 응답자 중 48%인 86명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교육보다 대중매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5명(57.7%)이 대중매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는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5%가 매우 필요하다(26.3%)거나 필요하다(58.7%)고 응답한 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6.6%가 긍정적(73.2%) 또는 매우 긍정적(13.4%)이라고 응답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대중매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57.5%) 또는 매우 긍정적(16.2%)이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부정적(5.0%) 또는 매우 부정적(2.2%)이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그 이유로 지적한 내용을 살펴 보면,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5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22.3%)과 학생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대중매체의 전달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40.7%), 기존의 교육과정과 적절하게 연계되기 어렵다(31.5%)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79명 중 91명(50.8%)이 환경교육용 매체로 텔레비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디오(35.2%)와 신문(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매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주목할 점은 1, 2위를 차지한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모두 영상매체라는 점이다.

앞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교사들은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더 많이 제작·전파되어야 하고(57.0%), 그에 대한 정보가 교사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44.1%)고 응답하였다.

2. 학생 설문 분석 결과

학생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분은 대중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친숙도, 정보출처, 신뢰도, 적합성 등을 빈도분석을 통해 밝히는 단계이며, 두번째 부분은 학생들의 학교급별, 성별, 주거유형별 특성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교차분석을 통해 밝히는 단계이다. 마지막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 환경교육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선택한 매체의 유형과 그 이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단계이다.

첫번째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친숙한 매체는 텔레비전(5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라디오(12.0%), 컴퓨터(7.4%), 신문(9.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텔레비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친숙도를 나타내었다.

환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매체 역시 텔레비전(61.6%)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문(24.1%), 책(9.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매체들로부터 얻는 정보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과 책은 라디오나 컴퓨터에 비해 친숙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결과가 Ostman과 Parker(1986/87) 그리고 Alaimo와 Doran (1980)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획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매체 역시 텔레비전(4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매체들도 정보 획득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 결과, 어떤 매체에 대한 정보 획득 정도와 그 매체에 대한 신뢰도 사이

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p < 0.01$)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환경교육적으로 적합한 매체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텔레비전(3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26.0%), 영화(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자료로서 시청각 매체를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응답 학생들의 학교급, 성, 주거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에 따라 평소에 친숙한 매체, 획득한 정보에 대해 가장 신뢰하는 매체, 환경교육적으로 가장 적합한 매체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평소에 가장 친숙한 매체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획득한 정보에 대해 가장 신뢰하는 매체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관계($p < 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은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매체는 생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64.0%, 58.3%, 43.6%)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신문, 책(잡지)과 같은 시각 매체와 자료 복사가 용이한 컴퓨터는 자료를 보관, 정리하기 쉬워서(38.5%, 40.0%, 43.5%)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만화는 재미있기 때문(79.0%)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보다는 생생하고 현장감있는 학습방법 및 매체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매체 유형별로 재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매체 선정이유와 매체 유형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체 유형별 선호도는 시청각 매체(70.4%), 시각 매체(21.3%), 컴퓨터(7.4%), 청각 매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사들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대중매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48.0%) 긍정적(86.6%)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중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앞으로 대중매체를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관련 프로그램과 자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작·전파되고(57.0%), 그에 대한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44.1%)고 지적하였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매체와 매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87.1%)와 학생(70.4%) 모두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서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등의 시청각 매체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강의식 교수법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감과 생생한 느낌을 주기 때문(교사 48.0%, 학생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호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할 때 책과 같은 시각 매체보다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등의 시청각 매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학생들의 학교급에 따라 매체별 친숙도, 신뢰도, 선호도, 선호 이유 등에서 차이($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여러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에서 대중매체를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